

언제나 문학과 함께였던 작가의 그리운 옆모습

—권태응 저, 도종환·김제곤·김이구·이안 엮음, 『권태응 전집』, 창비, 2018.

남지현*

1. 드디어 책으로 묶여 나온 권태응의 육필 동요·동시집

권태응의 동요·동시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1990년대부터이다. 몇몇 연구자들에 의해 그의 미발표 유작들이 공개되면서 잡지나 단행본을 통해 정식 발표된 동요·동시보다 훨씬 많은 유고가 있다는 것이 알려졌고 그 이후 제한된 경로를 통해서나마 그의 문학에 대한 연구가 이어졌다. 그러나 각종 학위논문이나 이오덕의 연구서 『농사꾼 아이들의 노래』(소년한길 2001)에 소개된 육필 작품집의 구성과 머리말, 개별 작품 등을 토대로 미발표 작품집을 부분 재구성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는 늘 아쉬움과 한계를 남기는 작업이었다.

그러던 중 지난 11월, 권태응 탄생 100주년에 즈음하여 새롭게 발굴된 그의 미발표 작품들이 포함된 『권태응 전집』(창비 2018)이 출간되었다. 전집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623쪽에 달하는 두툼한 책에는 360여 편의 동요·동시와 8편의 단편소설, 3편의 희곡, 2편의 수필이 묶여 있다. 이외에도 생전의 모습이 담긴 사진 자료와 새로운 유고들을 접하게 된 순간에 대한 엮은 이의 기록, 동요·동시집의 서지 정보와 재수록 현황, 작가 연보, 권태응의 삶과 문학에 대한 해설이 수록되어 있다.

*인천가원초등학교, narrativian@daum.net

이 책을 처음 손에 쥐었을 때 떠오른 생각은 ‘드디어 책으로 나왔구나.’ 하는 것이었다. 필자가 권태웅의 작품을 연구하던 2010년 무렵, 기존 연구들을 통해서 그가 손수 묶었다는 육필 동요집의 머리말을 읽으며 자주 들었던 생각은 그 책들이 당대에 실제로 출간되었다면 시인이 참으로 기뻐했으리라는 것이었다. 생전에 출간된 작품보다 유고가 훨씬 많은 작가 권태웅에게는 가래나무에 글을 새기는 일, 즉 활자화와 출판을 의미하는 ‘상재(上梓)’가 절실한 작업이었으리라는 다소 감상적인 상상을 했던 것인데 이번 전집에 수록되지 않은 수백편의 시조와 시가가 묶인 육필 작품집도 있었다고 하니 이러한 생각을 더욱 떨치기 어렵다. 고향에 돌아와 시조를 짓기 시작한 1944년부터 마지막 육필동시집 『산골마을』을 엮은 1950년까지, 짧은 시간동안 그가 손수 엮은 작품집들은 동요·동시집만 해도 10권에 이르고 시조집 등을 포함하면 15권이 넘는다. 아픈 몸으로 이렇게 많은 미발표 작품집을 부지런히 엮었을 작가의 생전 모습을 상상하노라니 수많은 그의 시와 산문들이 단단한 책으로 묶여 세상에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하나의 ‘사건’이 아닐까 싶다.

2. 잘 알려진 장르를 책으로 읽는 즐거움과 아쉬움 : 득의의 영역, 동요·동시

시인이 손수 엮은 각각의 육필 시집들이 낱권으로 출간된 것은 아니지만 『권태웅 전집』을 통해 합본의 형식으로 한 권 한 권 그의 동요·동시집을 읽어나가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권태웅 전집』이 출간되기 전까지 『농사꾼 아이들의 노래』가 가장 많은 권태웅의 작품을 수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책을 통해 권태웅의 동요·동시를 접했던 독자들이라면 이미 공개된 230여 편을 제외하고도 130편 가량의 새로운 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 필자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특히 『작품』 『동요와 또』 『산골마을』에 포함되었으나 그간 소개되지 않았던 여러 시편들이 『권태웅 전집』을 통해

처음 공개되는 것으로 보인다.¹ 이렇게 새롭게 소개되는 시편들이 기존에 공개되었던 시와 견주어 작품의 완성도가 떨어지거나 습작의 수준에 그치지 않는까 하는 염려도 들었으나 다행히 기우에 지나지 않았다. 간혹 미

1 『농사꾼 아이들의 노래』와 『권태웅 전집』의 색인목록을 비교하여 전집에만 수록된 작품들을 동요·동시집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이때 같은 제목의 작품이 (A), (B)로 구분된 경우 한 편으로 산정했다.

동요·동시집 제목	「전집에만 수록된 작품명」 수록면	편수
송아지	「무엇 반짝」 27 「빼야빼야 병아리들」 32 「생동이 형제」 40 「우리 집 시계」 41 「할아버지 수업」 42 「우리는」 43 「기차」 45 「아침 이슬」 49 「등산불」 50 「옛날얘기」 51 「여름과 겨울」 53 「고개 속이고 오니까」 58	12
하늘과 바다	「벽장문」 66 「매미 찾기」 68 「발가숭이산」 82	3
우리 시골	「벽장」 92 「장미화」 94 「옥수수2」 97 「이 길」 98 「봉선화」 99 「노랑 차미」 100 「우리 집 그림」 110 「치운 겨울」 122	8
어린 나무꾼	「술래잡기」 126 「햇님과 달님」 127 「잘 자는 우리 아기」 129 「다 컸다」 130 「부채질」 133 「우리 집」 140 「산새들」 151 「겨울밤」 152	8
물동우	「참새 새끼」 157 「불이 깜박」 164 「어려진다면」 169 「까치집2」 177	4
우리 동무	「동네 앞길」 183	1
작품	「밤 줍기」 221 「벌어졌다」 225 「뚝자리」 230 「코스모스」 234 「추석날」 240 「국화꽃」 241 「빈 정자」 243 「약국쟁이 할아버지」 255 「선왕나무」 256 「동네 길」 257 「잘도피네」 258 「언니와 신랑」 261 「겨울날 구름1」 264 「새봄까지」 265 「스속 씨와 참새」 266 「아기와 아빠」 271 「아기 발자국」 273 「겨울날 구름2」 276 「학교 가고파」 280 「고추」 291	20
동요와 또	「제비 집 참새 집」 296 「교원교가」 281 「글공부」 282 「모두 추위 이긴다」 290 「디딤돌 다리」 308 「인생」 310 「지구」 316 「탱자2」 319 「어젯밤 손님」 320 「아침 참새」 325 「아기 잠1」 326 「알고만 싶어요」 330 「달팽이1」 331 「달팽이2」 332 「참새 굴」 343 「집비둘기」 344 「산딸기」 345 「아기 잠2」 346 「할아버지 친구」 346	19
산골마을	「귀머거리」 359 「귀머거리 할머니」 359 「서쪽새(A)」-「서쪽새(B)」 360 「산골길」 361 「피란길」 361 「이 산골까지」 362 「피란 와서」 362 「잠간 사귀 동무」 363 「피란 곳 동무」 363 「산 샘물(A)」-「산샘물(B)」 364 「산길」 365 「밤 마실」 365 「왜 싸우나(A)」-「왜 싸우나(B)」 366 「피병」 367 「하늘만 보지요」 368 「저놈 비행기」 368 「영 너머로(A)」-「영 너머로(B)」 369 「산골 마을(A)」-「산골 마을(B)」 370 「산에는」 371 「두맷골에서」 372 「두맷골」 372 「조용도 하다」 373 「소 뜰기(A)」-「소 뜰기(B)」 374 「외딴집(A)」-「외딴집(B)」 375 「모두 일갓집」 376 「꽃」 377 「꽃밭」 377 「쌍쌍 나란히」 378 「푸근한 나무」 379 「나무 걱정」 379 「세 가지 빛깔」 380 「약풀 뜯으러」 380 「쌍놈비행기」 381 「억울한 농민들」 381 「뜨르라미」 383 「꿀벌」 383 「들밥2」 384 「수양골」 386 「암탉 소리」 387 「책 읽는 소리」 388 「산속 마을」 389 「산속 아이들」 390 「없어진 도야지」 391 「산골 제비」 392 「밤만 되면」 393 「반딧불」 394 「거미줄」 395 「매미」 396 「자장노래」 397 「흙통물」 398 「무궁화」 399	51

발표 원고를 발굴하고 소개하는 과정에서 작가가 생전에 작품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태작(駄作)들까지 후대 연구자들에 의해 공개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권태웅 시인의 경우 자신이 작품집으로 손수 엮은 작품들이 그만큼 공개여부나 작품으로 포함시킬 것인가에 대한 1차적인 논란은 불필요해 보인다. 그보다 새롭게 공개된 시편들이 그의 작품 세계를 어떻게 확장시키거나 특징짓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작품 세계 전반에 대한 연구 주제를 도출할 단계로 접어들어야 할 것이다.

다만 연구자의 관점에서 아쉬운 점들도 눈에 띈다. 첫 번째는 원전 수록 시 편집 기준에 대한 것이다. 전집을 엮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원전을 어디까지 살리고 얼마나 다듬어야 하는지에 대한 원칙 수립일 것이다. 특히 권태웅의 작품은 방언이나 입말이 사용된 경우가 많고 그러한 시어들은 언어의 기표 자체가 주는 청각영상으로서의 이미지를 좌우하기 때문에 현대 독자와의 소통을 위해 어디까지 수정할 것인지를 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이다. 가령 「송아지와 아이」(전집 101면 수록)는 『농사꾼 아이들의 노래』에서 「송아지와 아해」라는 제목으로 소개되고 있으며 본문에 사용된 시어 ‘아해’ 역시 옛말을 그대로 살려 쓰고 있으나 창비본 전집에서는 모두 오늘날의 표준어인 ‘아이’로 고쳐 놓았다. 이는 16면에 제시된 일러두기 8번처럼 ‘맞춤법, 띄어쓰기는 현행 표기법을 따르는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다. 그러나 ‘작가만의 독특한 어휘나 사투리, 독창적 표현들은 최대한 존중한다는 원칙’에 따라 손가락의 방언 ‘손가락’ (『아기 산술』 229면), 파리의 방언 ‘꼬아리’ (『꼬아리』 232면), ‘~부터’의 방언인 ‘~부터’ (『떡퐁땡이』 235면) 등은 그대로 표기하면서 ‘너’ 혹은 ‘너희’의 방언인 ‘느’ (『토끼 발자국』 272면) 혹은 ‘느네’ (『북쪽 동무들』 216면)는 표준어로 바꾸어 표기하는 등 일관되지 않은 경우가 있다. 1948년 글벗집에서 간행된 동요집 『감자꽃』의 경우 “육필 동요집 수록작보다 한글맞춤법을 좀 더 따랐고, 사투리가

표준말로 바뀐 경우들이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그 근거나 기준 역시 불분명하다. 용어 해설을 각주로 표기한 경우에도 어떤 원칙으로 용어를 해설하는 것인지 그 원칙이 불분명해 보인다. 1077쪽에 달하는 백석 시어 분류 사전 『백석 시의 물명고』(고형진, 고려대학교출판부, 2015)를 참고할 때, 권태응 시어의 어석(語釋) 정리는 또 다른 단행본을 필요로 하는 방대한 작업이 될 수 있다. 권태응은 작품 편수가 많고 독특한 의성어와 의태어, 사투리 사용이 잦기 때문에 특히 그러할 것이다. 따라서 전집에서 어석 정리 작업을 모두 감당해 내기 어려운 것은 감안하더라도 이왕에 어휘 해설을 시도하고 있다면 이에 대한 기준이 좀 더 명확할 필요가 있다. 전집의 내포독자를 어떻게 상정하느냐에 따라서도 그 기준과 범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향후 개정판 작업 단계에서 숙고하고 보완할 사안으로 보인다.

두 번째 아쉬운 점은 작품마다 시인이 표기한 장르명이 누락되어 있다는 것이다. 권태응 시인이 육필 원고들을 책으로 묶을 때 덧붙인 작가의 말을 살펴보면 유난히 ‘노래’라는 말이 많이 쓰였음을 알 수 있다. 윤석중, 윤복진처럼 자신들의 동요가 당대에 노래로 만들어진 작가들을 염두에 둘 때 권태응 역시 자신의 시가 노래로 만들어질 것을 상상했음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그러던 그가 후기 작품집에서는 ‘동시’라는 장르명을 부기한 시편들을 창작한 바 있다는 점에서 권태응은 동요와 동시 장르에 대해 각기 다른 장르 의식을 갖고 있었다고 가정해 볼 수 있다.² 그러나 『권태응 전집』에서는 이러한 장르명 구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어 아쉽다.

2 권태응은 동시를 창작하기 전에 시조를 창작하면서 기존 시조의 정형률에서 벗어나 중장에서의 파격을 시도하였으나 시조라는 장르 안에서는 그러한 시도가 한계를 갖는다고 느낀 후 다시 정형률을 고수하는 시조 창작으로 되돌아온 바 있다. (김제곤, 「동시인 권태응이 되기까지-새로 발굴된 유작들을 중심으로」, 『창비어린이』 16(1), 2018, 120~146면 참조) 이처럼 권태응은 동요나 동시뿐 아니라 시의 하위 장르에 대해서도 민감한 장르 의식을 가지고 그 장르적 규범 안에서 가장 잘 펼쳐 보일 수 있는 세계를 표현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3. 이제껏 알려지지 않은 장르를 읽는 즐거움 : 권태웅의 산문

『권태웅 전집』에는 아동문학 외에도 8편의 소설과 3편의 희곡, 2편의 수필이 수록되어 있다. 특히 그의 희곡은 실제 상연을 목적으로 쓰여진 것이다. 가령 「동지들」은 「고향 사람들」공연이 호응을 얻은 후 쓰여진 후속작이었다. 이는 그가 책상물림으로 창작만 한 것이 아니라 희곡을 쓰고 그것을 공연하는 등 당대의 농촌 사람들과 소통하며 현실의 부조리를 돌파해 나가는 전망을 극으로 함께 표현했음을 보여준다. 지주와의 대결을 앞둔 긴장된 상황 속에서도 인물의 약혼식을 함께 준비하는 청년들을 통해 유쾌하고 희망적인 분위기로 끝을 맺거나(「동지들」) 젊은이들이 미래를 열어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능청스러운 학생들의 대사(「우리 교실」) 속에서 풀어내는 등 그의 희곡에서는 해학과 유머를 느낄 수 있다. 초기 소설에서는 작가의 페르소나로 여겨지는 문식이라는 인물이 등장하고, 투병 모티프가 나타나는 등 자전적인 요소가 두드러졌으나 후기의 작품들로 이어질수록 작가의 페르소나가 다양한 인물로 분화하고 사건 역시 단일하지 않은 양상으로 발전해가는 등 매 작품마다 변화의 지절들이 분명히 느껴진다는 점이 흥미롭다.

이렇게 산문 장르의 작품들을 읽고 나면 권태웅을 단지 시인이라고만 부르기 어려워진다. 희곡이나 소설의 작품성이 당대의 다른 작품들에 비해 빼어나서가 아니라 각 장르마다 각기 다른 작가의 스타일이 느껴지기 때문이다. 희곡의 대사 처리, 소설에 등장하는 문제적 인물과 그가 처한 상황이 독자에게 제기하는 윤리적 질문이 장르의 문법 안에서 적절하게 구사되어가는 변화 양상, 다시 말해 그가 매일매일의 글쓰기를 통해 해당 장르 규범을 빠르게 습득해가는 과정을 확인한 이후에는 권태웅의 산문이 단지 그의 동요·동시나 작가 자신을 설명하기 위해서만 소구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진다. 모든 장르에서 걸출한 작가라 평가할 수는 없겠으나

그렇다고 이제 그를 그저 시인이라고만 말할 수도 없게 된 것이다. 지금껏 그를 설명하기 위해 가장 많이 회자되었던 ‘요절한 동시인’이라는 수식어 대신 다양한 장르를 탐구했던 ‘성실한 작가’로 부르고 싶다.

4. 2018년 창비본 전집이 남긴 과제

이렇게 『권태웅 전집』을 통해 작가 권태웅의 다양한 문학세계를 접하는 시간은 가문 땅에 내리는 첫 번째 단비처럼 비어 있던 곳을 채우고 갈라진 틈새를 메울 수 있다는 기대와 희망을 갖게 했다. 이 전집을 통해서 이제 누구든 그가 남긴 많은 작품들을 구해볼 수 있게 되었다. 또 그만큼 연구자들에게는 새로운 연구를 이어나가야 한다는 책임 또한 부과되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2018년에 출간된 『권태웅 전집』이 최종적인 전집인가, 혹은 진정한 전집인가 하는 의문은 거둘 수 없다. 작가가 작품집으로 엮은 시조집 등 아직 공개되지 않은 작품들이 너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권태웅 전집』에서는 1944년부터 1946년이 동시 창작을 위한 모색과 습작의 시기이며 따라서 그 시기 묶인 시조집 등을 전집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방침(일러두기 2번 참조)을 세우고 있다. 이는 권태웅의 작가적 정체성의 핵심은 동시인이며 따라서 전집의 주된 내용 역시 동요·동시 작품이어야 한다는 관점이다. 동시와 동요가 권태웅 문학 세계의 주요 장르인 것은 현 단계에서 부정할 수 없지만 미발표된 많은 작품들을 괄호친 채 2018년에 간행된 창비본 『권태웅 전집』을 명실상부한 전집이라 승인하는 것은 대상의 옆모습만을 보고 전부를 보았다고 말해버리는 것과 비슷하지 않을까?

필자가 책의 말미에 실린 연보를 토대로 그의 창작활동을 정리하며 마주친 것은 투병의 와중에도 매일 창작을 멈추지 않았던 문학에 대한 열정과 성실한 기록과 편집의 흔적이었다. 이렇게 볼 때 수많은 미발표 육필 작품집을 엮은 것 역시 단지 출간에 대한 열망에서 비롯되었다기보다 창

작자이자 편집자적인 권태응의 면모를 보여주는 것은 아닐까 싶다. 『권태응 전집』을 통해 어떤 형태로든 것처럼 매순간 문학과 함께였던 작가 권태응을 만날 수 있어서 즐거웠다. 즐거움이 큰만큼 아직까지 읽어보지 못한 다른 작품들을 통해 그를 온전히 만나고 싶다는 새로운 욕심과 기대도 함께 일어난다. 개정판의 형태로든 후속권의 출간으로든 혹은 연구본의 형태로든 관계없이 말이다.³

3 전집 발간의 다양한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권태응 선생 탄생 100주년 기념 학술대회에서 제출된 다음 논의를 참조하는 것도 유용해 보인다.: “이번에 발간되는 문학전집은 독서본입니다. 독자대중이 권태응 문학을 접할 수 있도록 만든 기본 전집입니다. 이제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전집을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10년 계획으로 연구본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연구본에는 개개 작품에 대한 주석과 설명 그리고 대표적인 연구논문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년 계획으로 역사비평본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권태응 문학을 종합하는 결정판입니다. 예를 들어 독일의 문호 괴테는 연구본이 12권으로 되어 있고, 역사비평본은 10권이 넘습니다.” (이상기, 「권태응 선생 기념사업 현황과 과제」, 『권태응 선생 탄생 100주년 기념 학술대회 자료집』, 2018, 94면)